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 주간투자전략 [3/30~4/3]

### 유가·환율·전쟁 다 흔들려도 살아남을 종목은 따로 있다 ... 무엇을 사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

- 4 월의 분기점: '지정학 리스크 둔감화와 실적 시즌 진입'이 맞물리는 구간
-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미국의 소비 지표, 제본스의 역설 확인 등
- 지나친 공포를 이용한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
- 에너지/정유, 반도체, 기계·하드웨어, 증권, 은행, 방산·지주 등 유망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가격 반영 완료와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으로의 체질 개선

#### 4 월의 분기점: '지정학 리스크 둔감화와 실적 시즌 진입'이 맞물리는 구간

이번 주 한국 증시 전망의 핵심 주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가격 반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동하는 구간이다.

주 초반에는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1,500 원대까지 치솟은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단기 심리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점차 공포 자체보다 실적과 이익 체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공급망 차질이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며 한국의 강점인 제조 기반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주요 이슈 등 점검

####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미국의 소비 지표, 제본스의 역설 확인 등

주요 증시 이슈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미국 소비 지표, 반도체 수요 재해석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구글의 '터보 쿼트' 이슈로 인해 메모리 수요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리서치 시각에서는 오히려 기술 효율화가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어 메모리 총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 월 7 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공포를 이용한  
주도주 비중 확대 유효

#### 지나친 공포를 이용한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

투자 전략은 '지나친 공포를 이용한 주도주 비중 확대'라는 전향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지수가 60 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며 기술적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이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환율 수혜를 입는 대형 수출주와 고유가 상황에서 정제마진이 개선되는 에너지주를 선점해야 한다. 특히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지수 조정 구간을 우량주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하락장에서 복원력 기대

#### 에너지/정유, 반도체, 기계·하드웨어, 증권, 은행, 방산·지주 등

투자 유망 섹터는 에너지/정유, 반도체, 기계·하드웨어, 증권, 은행, 방산·지주, 그리고 정책·수급 변화에 민감한 제약·바이오를 추천한다. 또한 정제마진 강세와 미국 설비 폐쇄 수혜를 입는 S-Oil, AI 수요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전자, 글로벌 수급 밸런스 개선이 뚜렷한 효성티앤씨, 그리고 중동 리스크의 직접적 대안인 비츠로셀 등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여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 복원력을 기대할 수 있다.

**[주간 5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                                |                                                                                                                                                                                                      |
|--------------------------------|------------------------------------------------------------------------------------------------------------------------------------------------------------------------------------------------------|
| 금주 KOSPI<br>5,400 ~ 5,900 pt   |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b>5,400 ~ 5,900 포인트</b> 로 제시한다. 최근 구글의 소프트웨어 효율 개선 이슈와 환율 쇼크로 인해 단기 조정이 발생했으나, 이는 1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조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수가 60 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
| 환율 1,500 원 시대<br>생존과 역발상       | 금주 주요 이슈로는 1)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 원을 돌파하며 변동성이 커졌으나, 과거 2008~2009 년과 달리 현재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오히려 고환율은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에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작용해 실적 방어 또는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
| 전쟁 장기화<br>리스크의 가격 반영           |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 선회로 종전 기대감은 후퇴했으나, 시장은 고유가 시나리오를 점차 주요 변수로 반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우려는 역설적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갖춘 한국 제조 기업들에게 신규 수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
| 반도체 '터보 쿼트'<br>노이즈와 제본스의<br>역설 | 메모리 효율 향상이 수요 감소를 부른다는 논리는 단편적이다. 경제학의 '제본스의 역설'처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당 자원의 전체 소비량은 늘어난다. AI 연산 비용이 낮아질수록 전 세계 빅테크들의 AI 서비스 도입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메모리 총수요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유형자산의 부활과<br>제조업 르네상스          | 금융위기 이후 무형자산 투자가 지배하던 흐름이 이번 중동 분쟁을 기점으로 '실체 있는 자산'인 유형자산 투자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육성 기조는 한국의 기계, 조선, 전력설비 등 산업재 섹터에 중장기 수요 확대 기대를 높일 수 있다.                                                          |
| 빅테크의 탈 탄소<br>역설과 유틸리티<br>수요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에 강력한 탈 탄소 요구를 하는 동시에, 본인들은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전 등 안정적 전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국내 에너지 관련주와 전력기기 섹터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                                                   |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                                     |                                                                                                                                                                                                                                                                                                                                                                                                                                                                   |
|-------------------------------------|-------------------------------------------------------------------------------------------------------------------------------------------------------------------------------------------------------------------------------------------------------------------------------------------------------------------------------------------------------------------------------------------------------------------------------------------------------------------|
| <b>상승 요인</b><br>실적이 증명하는<br>펀더멘털의 힘 | <p><b>1. 반도체 이익 전망의 압도적 우상향:</b>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026 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2026 년 3~4 분기까지 꺾이지 않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 을 넘어 DDR4, NAND 등 레거시 제품의 가격 반등세가 뚜렷해 실적 개선 강도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p> <p><b>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가동:</b> 주총 시즌을 맞아 주요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수가 흔들릴 때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형성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p> <p><b>3. 미국 경기의 강력한 복원력:</b>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와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의 최종 수요처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며,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다.</p> |
| <b>하락 요인</b><br>고착화되는 고금리와<br>비용 부담 | <p><b>1.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금리 인상' 불안:</b> 유가 상승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채권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특히 증시의 멀티플을 압박할 수 있다.</p> <p><b>2.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공백:</b> 지정학 리스크가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자극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부담 요인이다.</p>                                                                                                                                                |

**변수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

**3. 신용 융자 및 레버리지 청산 위험:** 최근 급등 장세에서 유입된 신용 물량들이 지수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반대매매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가 하락 시 낙폭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트럼프의 중동 전략 가변성:**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유가와 환율이 하루 만에 5%씩 널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 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신임 한은 총재 지명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시중 금리의 상승은 가계 부채 부담과 증시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3. 공급망 탈 탄소 규제의 본격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탄소 감축 기준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1. 에너지/정유\_구조적 공급 부족의 수혜 가능성이 큰 업종 :** 미국 내 노후 정제설비 폐쇄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정제마진이 역사적 고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은 정유사들에게 재고 평가 이익과 판매가 상승이라는 쌍끌이 호재를 제공한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화두가 된 만큼, 에너지 섹터는 단순 테마를 넘어 포트폴리오의 필수 핵심 자산이 되었다.

**2. 방산 및 에너지 안보\_지정학 리스크 확대 국면의 대안 업종:** 중동 분쟁 장기화는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과 에너지원 다변화(원전, 재생에너지)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 방산의 우수한 납기와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화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쟁 장세에서 방어적 성격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방산 섹터는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 방어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3. 반도체\_적 방향성이 가장 선명한 핵심 업종:**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실적 방향이 가장 선명하고, 한국 증시에서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축이며, 특히 코스피 내 반도체 순이익 비중이 2026 년과 2027 년 전망치 기준 50% 후반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4. IT 부품/소부장\_과매도 구간에서 선별이 필요한 업종:** '티보 퀀트' 노이즈로 인해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 자회사 모멘텀의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거나, 차세대 AI 패키징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지수 반등 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5. 은행/증권, 지주\_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 강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 강세 구간에서 코스피 내 은행과 방산/지주가 유리하며, 반대로 전쟁 완화와 달러 약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증권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업종만 들고 가기 부담스럽다면, 이익 안정성과 주주환원 모멘텀이 있는 금융주도 함께 섞는 전략이 유효하다.

**[주요 관심 종목 및 포인트]**

**관심 종목** - **삼성전자(005930):** AI 수요 견조 및 메모리(DDR4·NAND)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상향과 파운드리 반사수혜 기대.

- **SK 하이닉스(000660)**: 빅테크항 HBM 수요 강세와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믹스 개선이 실적 모멘텀을 지지할 전망.
- **삼성전기(009150)**: MLCC 가격 인상 및 AI-전장용 부품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회복과 반도체 온기 확산 수혜.
- **티씨케이(064760)**: AI 서버용 NAND 수요 폭증 및 고객사 전환 투자 수혜,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에 따른 수급 개선.
- **티에스이(131290)**: 프로브카드 등 제품군 확대와 자회사 성장 효과가 맞물리며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가 유효.
- **LG 이노텍(011070)**: 고환율 수혜 및 서버용 FCBGA-전장 부문 가동률 상승에 따른 1 분기 실적 개선 가시성 확보.
- **KB 금융(105560)**: 건조한 이익 체력과 주주환원 강화가 돋보이는 대표 밸류업 종목.
- **키움증권(039490)**: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의 직접적 수혜와 실적 변동성에 관계없는 배당 확대 기조 유지 방침 긍정적.
- **서진시스템(178320)**: AI 전력 인프라 확장에 따른 ESS 수요 확대와 전력·통신 장비 노출도가 부각.
- **RFHIC(218410)**: 한·미 주파수 할당에 따른 투자 재개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장비 규제 강화에 따른 점유율 확대.
- **삼양바이오팜(0120G0)**: 유전자치료제 전달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가치 부각 및 신약·항암제 포트폴리오 확장 기대.
- **제테마(216080)**: 필러·특신 기반의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으로 해외 신규 허가 및 수출 성장에 따른 저평가 매력.
- **올릭스(226950)**: 글로벌 빅파마(일라이릴리) 협업을 통한 플랫폼 기술력 입증 및 바이오 성장주 내 차별화된 모멘텀.
- **알지노믹스(476830)**: RNA 플랫폼 기반 기술 가치와 추가 기술수출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위험선호 회복 시 주가 탄력성이 클 수 있음.
- **S-Oil(010950)**: 글로벌 정제설비 폐쇄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과 정제마진 강세, OSP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호주·미얀마 가스전 증산에 따른 에너지 실적 점증 및 식량 사업 규모 확대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
- **두산에너지빌리티(034020)**: 글로벌 원전 수주 르네상스 수혜와 2026 년 대규모 신규 수주 가이던스 기반의 실적 가시성.
-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신작 및 IP 활동 재개 여부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비주류 대안 업종 내 관심이 확대될 수 있음.

[표 1] 금주 관심 종목 중 핵심 10 선

| 코드     | 종목명       | 업종      | 시총<br>(십억원) | 주가(원)   | 주간상승률 |
|--------|-----------|---------|-------------|---------|-------|
| 000660 | SK하이닉스    | 반도체     | 657,111.6   | 922,000 | -8.44 |
| 009150 | 삼성전기      | IT하드웨어  | 32,417.1    | 434,000 | -6.57 |
| 064760 | 티씨케이      | 반도체     | 2,671.9     | 239,000 | -5.53 |
| 131290 | 티에스이      | 반도체     | 1,220.1     | 110,300 | -9.44 |
| 105560 | KB금융      | 은행      | 56,747.8    | 152,200 | -1.93 |
| 178320 | 서진시스템     | 기계      | 2,547.7     | 43,350  | -9.69 |
| 218410 | RFHIC     | IT하드웨어  | 2,188.0     | 82,400  | +1.85 |
| 216080 | 제테마       | 건강관리    | 302.9       | 8,140   | -5.90 |
| 476830 | 알지노믹스     | 건강관리    | 3,211.8     | 230,500 | +7.46 |
| 122870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교육 | 1,050.4     | 56,200  | -6.02 |

자료: 독립리서치 핀릿 리서치센터

##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및 실적 발표 일정]

4월 증시의  
변곡점을 예고하는  
지표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경제지표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위크'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고용 시장 변화다. 지난달 -9.2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던 비농업고용지수가 이번 달 5.6만 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업률이 4.4%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 일자      | 이벤트         | 예측   | 이전    | 시사점                                     |
|---------|-------------|------|-------|-----------------------------------------|
| 3/30(월) | 파월 의장 연설    | -    | -     |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 및 매파적 톤 예상          |
| 3/31(화) | 중국 제조업 PMI  | 50.2 | 49.0  |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시 국내 소재/기계 업종 긍정적           |
|         | CB 소비자신뢰지수  | 88.0 | 91.2  | 소비 심리 위축 확인, 고물가에 따른 실물 경기 부담 증가        |
| 4/01(수) | ADP 비농업고용   | 42K  | 63K   | 민간 고용 둔화 지속, 연준의 금리 압박 완화 요인이나 경기 우려 공존 |
|         | 미국 소매판매     | 0.4% | -0.2% | 마이너스 소비 탈출 여부 핵심, 경기 펀더멘털 확인의 잣대        |
|         | ISM 제조업 PMI | 52.3 | 52.4  | 제조업 회복세 유지 여부, 유형자산 투자 확대 흐름 확인         |
| 4/03(금) | 비농업고용지수     | 56K  | -92K  | 지난달 쇼크 회복 여부 관건, 4월 한 달간 증시 방향타 역할      |
|         | 미국 실업률      | 4.4% | 4.4%  | 고용 시장의 임계점 확인, 4.5% 상회 시 침체 우려 확산 가능성   |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금리 인하 지연과  
경기둔화 사이에서  
변동성 키울 듯

여기에 파월 의장의 연설과 ISM 제조업 지수 등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자극하는 지표들이 대기 중이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고용 지표가 혼조세를 보일 경우,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과 '경기 둔화'라는 두 가지 공포 사이에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요일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는 4 월 한 달간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 지표의 역설

종합해보면 현재 매크로 환경은 '유가 영향으로 물가 부담은 남아 있는 반면, 고용과 소비 체력은 다소 둔화된'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묻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시사점은 '지표의 역설'이다. 지금은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유가 상승과 맞물려 금리 인상 공포를 자극하고, 너무 나쁘게 나오면 전쟁 중 경기 침체라는 공포를 자극한다. 따라서 예측치 수준에 부합하는 적당한 지표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매크로(전쟁·금리)'에서 '마이크로(기업 실적)'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및 관전 포인트 등

| 일자      | 종목            | 관전 포인트                                       |
|---------|---------------|----------------------------------------------|
| 3/31(화) | 나이키(NKE)      | 중국 부진·관세 부담 속에서도 재고 정상화와 총마진 회복이 시작되는지가 핵심   |
|         | 맥코믹(MKC)      | 가격 인상 이후 물량 방어와 원가 부담 상쇄 능력이 필수 식품주의 체력을 보여줌 |
|         | 팩트셋(FDS)      | 금융 데이터 구독 수요의 안정성이 기관 투자 활동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반영    |
| 4/1(수)  | 콘아그라 브랜즈(CAG) | 가격 전가 이후에도 물량 감소를 멈출 수 있는지가 가공식품 업황의 핵심 변수   |
|         | 램웨스턴(LW)      | 외식 수요와 국제 판매가 미국 내 약한 트래픽을 상쇄하는지가 중요         |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4 월  
실적 장세의 서막

이번 주 실적 발표의 핵심은 '고물가와 전쟁 장기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나이키(NKE)와 맥코믹(MKC), 콘아그라(CAG) 등 필수소비재 및 경기소비재 대형주들의 실적은 향후 매크로 방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된다.

금주 실적 발표에서는 '비용 전가 능력의 차별화'에 주목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마진을 방어하는지, 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재고가 쌓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장은 지수가 60 일선을 테스트하는 변동성 구간에 진입해 있으므로, 어닝 서프라이즈 여부보다는 향후 발표될 '가이던스(향후 전망치)'에서 전쟁과 고유가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단기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당분간  
주당순이익(EPS)보다  
매출에 집중

특히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매출 서프라이즈' 수치를 주목해야 한다. 주당순이익(EPS)은 비용 절감으로 맞출 수 있지만, 매출(Revenue)이 꺾인다면 이는 실질적인 소비 둔화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리스크 이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비용 전가 능력이 확실한 대형 브랜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의 하단을 보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지수 변동성 자체보다 기업이 발표하는 향후 1~2 분기 가이던스에 집중하며 4 월 실적 장세를 대응해야 한다.

## 핀릿 리서치센터



##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amp;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